

대장암·갑상선암 보험금 미지급 사례 많아

소비자원, 최근 3년 암보험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약관상 면책사항 설명 않아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춰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암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신청 398건 중에서는 진단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73.6%였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7.4%에 불과했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전체의 27.3%(123건), 19.5%(88건)를 차지했고, 이어 유방암 13.3%(60건), 방광암 5.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암등록통계(2018)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12.0%)이었으며, 이어 갑상선암(11.8%), 폐암(11.7%), 대장암(11.4%) 순이었다.

대장암 피해구제 신청 123건 중 '신경내분비종양' 관련이 71.5%(88건)로 가장 많았고, 갑상선암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에서는 '갑상선 전이암' 관련이 86.4%(7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보험금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보험사는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5차 소화가장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에서도 동일하게 개정(2021년 시행)돼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으로 많이

발견되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보험사는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일반암 보험금의 10~30% 보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갑상선 전이암'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보험사는 '갑상선 전이암(이차성)'의 경우 갑상선암(일차성)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상 면책사항에 따라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만을 지급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암보험 진단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진단서상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담당의 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보험가입 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노뽕뽕! <178>

한라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문제 1. 아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 가장 따뜻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 가장 쌀쌀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 온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 순으로 선을 연결해보세요.
(온도가 같은 경우에는 선 연결 직전 지역과 가까운 곳을 먼저 연결하세요.)

문제 2. 저금통이 깨져서 돈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쏟아진 돈을 모두 주워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며 1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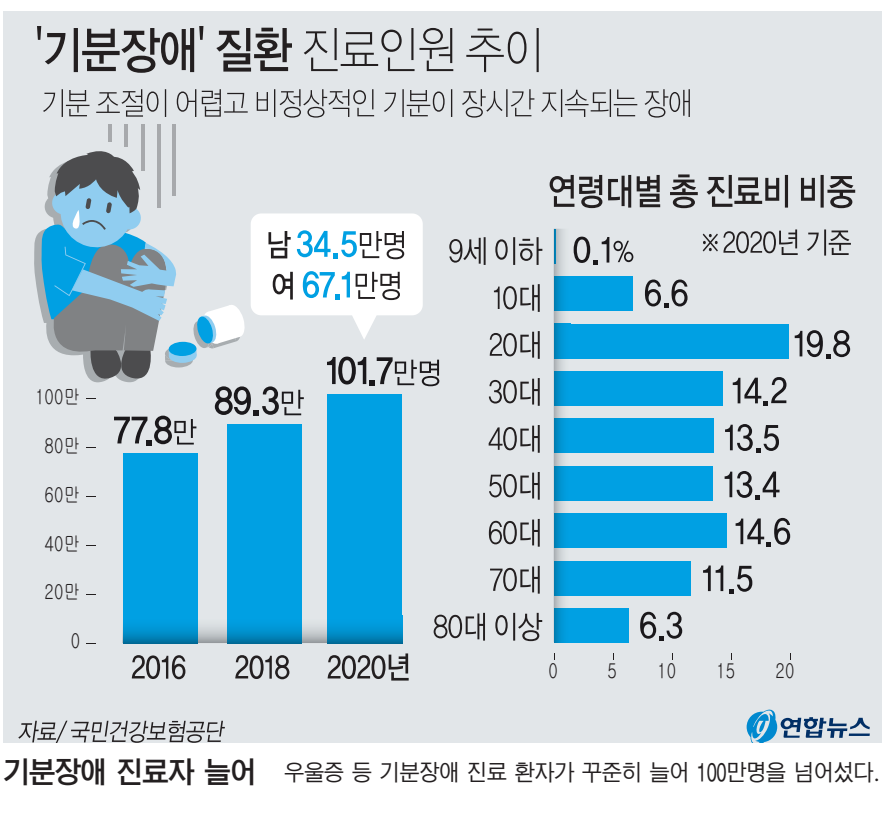
문제 3. 아래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보기>
지금은 오전 10시 15분입니다. 터미널에서 일출봉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고 갈 버스는 앞으로 40분 후에 출발하고, 일출봉까지는 1시간 45분이 소요됩니다. 일출봉에 도착하면 몇시가 되나요?
(몇시 몇분인지 쓰고 시계에도 표시 해주세요.)

▶ ()시 ()분



학습지 정답은 13면 한라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 월세 체납 7개 가정에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위기 등에 처한 7개 가정에 보증자리를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들 가정이 6개월 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 주택 지원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신청한 10개 가정 중 부양 가족 수, 미성년자 자녀 수, 월세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해 7개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상민기자

복시·투렛 증후군·강박 장애도 장애 인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複視)와 행동 등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투렛 증후군'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투렛 장애는 스스로 조절하기 힘

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을 일컫는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안면 장애와 정신 장애 기준이 마련됐다. 안면 장애의 일종인 백반증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면변형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로 완화됐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장애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판정 기준 고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Jeju 서귀포의료원 SEOGWIPO MEDICAL CENTER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정형외과 전문 진료

무릎인공관절 및 무릎퇴행성관절염 전문진료수지접합수술



24시간 분만산부인과 운영

무릎인공관절 및 무릎퇴행성관절염 전문진료수지접합수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보호자 없이 간호인력이 간병



심뇌혈관센터 운영

24시간 응급심혈관 시술 가능

대표전화 : 730-3000